

# 6일 인도학불교학 학술대회

## 10개분과 250명 논문발표, 한국불교학은 51명 참여

### 화엄학 권위 日 키무라 기오타카 교수 등 참석



◇마에다 센가쿠(일본 인도학불교학회 이사장, 메타다철학의 권위자)



◇키무라 기오타카(조견대 교수, 동아시아 불교 사상사 및 화엄학 대가)



◇이시카기 겐오(삼광문화연구소장, 동국대 석좌교수, 불교문화사 전공)

일본, 한국, 중국, 미국, 캐나다 등 전 세계에 걸쳐 2500여 명의 회원이 있는 일본 최대의 불교학 단체인 인도학불교학회 이사장 마에다 센가쿠 53회 학술대회(7월 6-7일 동국대)가 열린다. 한국의 동국대와 일본의 인도학불교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인도철학, 인도불교, 초기 불교 등 10개 분과 250명이 논문을 발표한다.

이번 학술대회가 국내 학자들의 기대를 부풀게 하는 것은 세계 불교학계에 한국 불교학을 알릴 수 있는 기회라는 데 있다. 개최 학교에서 특별 분과를 신설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한국 불교학 관련 분과가 2개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한국 불교학 관련 분과인 7분과에는 국내 학자 25명이, 8분과에는 외국에서 한국 불교학을 전공하는 학자 26명이 발표한다.

한국 불교학과 관련된 발표자 가운데는 동아시아 불교사상사 분야와 화엄학 분야의 권위자인 키무라 기오타카(조견대 교수)와 이시카기 겐오(일본 구텐대학 교수)가 눈에 띈다. 그는 '동아시아 불교 사상의 기초 구조'라는 책이 번역돼 출판되기도 했던 키무라 교수는 '해인사(海印寺)'를 발표하고, 역시 96년 '화엄사상의 연구'가 국내 출간됐던 이시카기 교수는 '원효 화엄사상의 원류'를 발표할 예정이다. 미토모 겐오(입정대 교수)가 발표하는 '일한 불교학 교류의 아버지, 김동화 박사의 일고찰'은 한일 불교학계에선 거의 처음으로 김동화

박사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치오 겐조(사천왕사 국제불교대 교수)의 '신출(新出), 원효의 <승만경의서>에 대하여'는 새로운 자료의 발굴이라는 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원효의 도솔천왕상관'을 발표하는 후지 요시나리(구주공과대) 교수는 국내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고, '한국불교에 있어 화엄교학과

밀교와의 융합'을 발표하는 사토 아츠시(동양대 비서관) 씨는 일본 동양대에서 의상·균여 화엄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소장학자다.

인도학불교학 학술대회는 젊은 학자들의 등용문인 동시에 대가들과 소장학자들이 얼굴을 맞출 수 있는 드문 기회이기도 하다.

마에다 센가쿠 일본 인도학불교학회 이사장을 비롯해 초기불교의 대가인 마에다 에카쿠(예지학원 교수, 여래장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다카사키 지게토(동경대 명예교수) 등 원로들도 대거 한국을 찾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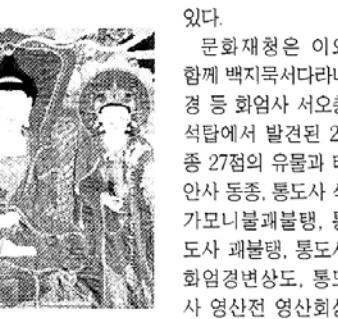
불교문화사 전공의 이시카기 겐오 삼광문화연구소장, 불탄연구로 유명한 스기모토 타쿠(가나자와대 교수, <대승일장경> 연구의 권위자)인 시무타 마사히로(동경대 교수, 다카하시 코우지 경도 불교대학장(정토학) 등이 참석하고, 고단사 연구의 대가인 사사키 시즈카(화연대) 조교수와 중관 분야의 권위자인 사이토 아키타(일본 동대대학원) 교수도 논문을 발표한다.

17~18세기 호남지방에서 조성된 괘불 7점이 한꺼번에 보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 2분과(동산) 심의를 거쳐 2일 오전 9시 괘불(보물 1339호), 천은사 괘불탱(보물 1340호), 도림사 괘불탱(보물 1341호·사지), 미항사 괘불탱(보물 1342호), 다보사 괘불탱(보물 1343호), 금암사 괘불탱(보물 1344호), 만연사 괘불탱(보물 1345호) 등 7점을 보물로 지정했다.

괘불은 야외에서 법회나 의식을 할 때 거는 일종의 대형 걸개 그림으로 현재 조

선 후기 이후에 조성된 것들만 전한다. 국보 7점, 보물 19점 등 모두 26점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이와 함께 백지묵서(다라니경 등) 화엄사 서오층 석탑에서 발견된 21종 27점의 유물과 태안사 동종, 통도사 석가모니괘불탱, 통도사 괘불탱, 통도사 화엄경변상도, 통도사 영산회상도, 통도사 청동은인사불향문향완 등 7건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이들 문화재는 한달 뒤에 다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여부가 결정된다.

용들은 모두 <석씨원류(원류화사적)> 불전판화에 사용됐는데도 둘의 내용이 전혀 중복되지 않는 점을 들어 벽화의 제작 시기를 팔상도가 봉안된 1775년 이후로 좁혔다. 이어 주목되는 자료는 현판으로 전하는 '영산전중수결단화기'와 '각법당초창기'의 내용이다. 이들 자료에는 화승 지언(指演)의 책임 아래 1792년 영산전 중창시 당청 공사가 이뤄졌고, 정조대에 색감을 다시 입히는 개체가 있었다고 기록돼 있다. 이 시는 "이들 기록과 함께 동서벽의 대형 벽화와 내부 포벽화들이 전체적인 구성과 표현 수법, 설계법 등이 같다는 점에서 1792년에서 정조가 승하한 1800년 사이에 같은 화사들에 의해 벽화들이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문화재연구소장 정년퇴임 조유전

지난 6월 28일 정년 퇴임식을 올린 국립문화재연구소 조유전(60·사직) 소장에게서는 여전히 햇볕과 싸우며 땅을 파느라 비지땀을 흘리는 '땅꾼'의 냄새가 난다. 69년 문화재관리국(지금의 문화재청) 촉탁 직원으로 문화재연구소(문화재연구소 전신)에 발을 들여놓은 조 소장은 무령왕릉, 천마총, 황룡사터, 감은사터, 안압지, 미륵사터 등 굵직한 유적의 발굴 현장에서 30여 년을 보낸 한국 고고학계의 '산 증인'이기도 하다. 그는 '62년 서울대 고고인류학과 2기로 입학한 이후 40년 동안 고고학과 관련된 현장에서 일하다 정년을 맞았

지난 주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됨에 따라 성묘 문화재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해마다 장마철이면 비 중 후유와 같은 자연 재해 외에도 습기나 곰팡이, 해충에 의한 문화재 훼손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돼 왔다. 장마철 문화재 보존은 습기와와의 싸움에서 시작된다. 1년 강수량의 30%가 장마철에 몰려 평균 습도가 90%에 달하기 때문이다. 목재나 종이, 섬유류, 석유류 등 문화재에 가장 이상적인 습도는 60%다. 금속류는 50% 미만인 알맞

다. 높은 습도는 그 자체로도 금속류 유물의 부식에 영향을 미치지만 목재나 종이, 섬유류 유물에는 습기 탓에 생기는 곰팡이나 해충에 의한 피해가 더 치명적이다. 탕화가 습기를 빨아들이면 곰팡이가 생기는 데, 안료 등과 분해 작용을 일으키면 얼룩이 지거나 탈색되기 쉽다.

# “문화유산 가꾸기는 국민 몫”

## 정년퇴임 조유전 국립문화재연구소장

오니 그보다 더 큰 행운이 어디 있겠느냐"고 감회를 털어냈다. 그러나 71년 하룻밤만에 끝난 무령왕릉 발굴에 대한 회한도 숨기지 않았다. 조 소장은 "발굴 경력이 일천했던 당시 고고학계에선 어쩔 수 없는 한계이기도 했다"면서도 "이를 계기로 발굴 전담 기구를 통한 전문화된 발굴의 필요성에 눈을 뜨고 있었던 것은 그나마 다행이었다"고 당시를 돌아봤다. 그렇다고 지금 발굴 여건이 좋기만 한 것도 아니다. 90년대 이후 급

격하게 늘어난 발굴의 대부분이 학술조사를 위한 발굴이 아니라 개발사업에 따른 구제발굴이기 때문이다. 조 소장은 "구제발굴은 유물은 남지나 유적의 흔적은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다. 유적이 가지고 있는 더 많은 정보들이 사라져 버릴 위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이 최고의 문화재 관리이며 보존"이라는 말을 잊지 않았다. '황룡사 가람에 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기도 한 조 소장은 경주조적발굴조사단장(76-90) 국립민속박물관장(94-97) 등을 지냈다.

유지해야 한다. 수장고나 전시실에 대한 소독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독약이 잔류성이 없는 만큼 장마가 끝난 다음 한꺼번에 하는 게 효과적이다. 석탑 등 외부에 있는 석조 문화재는 주변의 큰 나무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큰 나무가 쓰러지면서 탑

을 훼손시키는 경우가 왕왕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 밖에 많은 비로 석조 문화재 주변 흙이 유실되거나 토사가 붕괴돼 탑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배수로 점검도 중요하다. 이와 함께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는 "태풍이나 장마로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은 인기척을 감지하기 어려워 성묘도 단 사건이 빈발하는 만큼 단방지에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국립민속박물관장(94-97) 등을 지냈다. 유적의 높은 관심이 최고의 문화재 관리이며 보존"이라는 말을 잊지 않았다. '황룡사 가람에 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기도 한 조 소장은 경주조적발굴조사단장(76-90) 국립민속박물관장(94-97) 등을 지냈다.

학이 항상 존재한다"며 "우리 민족의 발자취인 문화유산이 아직도 천대받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조계종 성보보존위원을 지내기도 했던 조 소장은 "불교계도 국립중앙박물관처럼 불교문화재의 정수만을 모은 불교중앙박물관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며 "각 사람의 성보박물관도 사찰의 특성에 맞게 특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33년 6개월 몸담았던 문화재연구소를 떠나면서 조 소장은 "문화재 보존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세우는 것은 정부의 몫이지만 사랑하고 가꾸는 것은 국민의 몫이다"며 "문화유산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이 최고의 문화재 관리이며 보존"이라는 말을 잊지 않았다.

문화재연구소에서 만난 한 고고학계의 '산 증인'이기도 하다. 그는 '62년 서울대 고고인류학과 2기로 입학한 이후 40년 동안 고고학과 관련된 현장에서 일하다 정년을 맞았

다. 높은 습도는 그 자체로도 금속류 유물의 부식에 영향을 미치지만 목재나 종이, 섬유류 유물에는 습기 탓에 생기는 곰팡이나 해충에 의한 피해가 더 치명적이다. 탕화가 습기를 빨아들이면 곰팡이가 생기는 데, 안료 등과 분해 작용을 일으키면 얼룩이 지거나 탈색되기 쉽다.

다. 높은 습도는 그 자체로도 금속류 유물의 부식에 영향을 미치지만 목재나 종이, 섬유류 유물에는 습기 탓에 생기는 곰팡이나 해충에 의한 피해가 더 치명적이다. 탕화가 습기를 빨아들이면 곰팡이가 생기는 데, 안료 등과 분해 작용을 일으키면 얼룩이 지거나 탈색되기 쉽다.

다. 높은 습도는 그 자체로도 금속류 유물의 부식에 영향을 미치지만 목재나 종이, 섬유류 유물에는 습기 탓에 생기는 곰팡이나 해충에 의한 피해가 더 치명적이다. 탕화가 습기를 빨아들이면 곰팡이가 생기는 데, 안료 등과 분해 작용을 일으키면 얼룩이 지거나 탈색되기 쉽다.

# 불교문화재 정수 모은 중앙박물관 필요

## 성보박물관도 사찰특성에 맞춰 특화

국립민속박물관장(94-97) 등을 지냈다. 유적의 높은 관심이 최고의 문화재 관리이며 보존"이라는 말을 잊지 않았다. '황룡사 가람에 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기도 한 조 소장은 경주조적발굴조사단장(76-90) 국립민속박물관장(94-97) 등을 지냈다.

# 장마철... 문화재 훼손 많다

## 평균습도 90%... 습기·곰팡이 최대적 통풍·향온습기 점검, 도난에도 유의

국립민속박물관장(94-97) 등을 지냈다. 유적의 높은 관심이 최고의 문화재 관리이며 보존"이라는 말을 잊지 않았다. '황룡사 가람에 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기도 한 조 소장은 경주조적발굴조사단장(76-90) 국립민속박물관장(94-97) 등을 지냈다.

# 통도사 영산전 벽화 '팔상도' '영산회상도'

## 조선후기 佛畵風 이해 주요자료

이영중씨 발표. 벽화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회귀성과 중요성을 인정받으면서도 제작 연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6월 29일 (사한국미술사학회 130회 월례 발표회에서 이영중(서울대 강사) 씨는 그 동안 18세기 후반에 조성된 것으로만 추정되어 온 통도사 영산전 벽화의 제작 연대가 1792년부터 1800년 사이라고 밝혀 관심을 모았다. 이 씨는 먼저 영산전 내 팔상도나 벽화의 내

# 선무도 화랑 수련회

신라 화랑정신의 고장인 경주 골굴사의 稱武道 大金剛門에서는 청소년과 일반인을 위한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기 간: 2002년 7월 1일부터 2개월간(1주, 2주, 1개월) 대 상: 초등학생 이상 개인 및 단체(불교학부생, 신영단체, 각종 사외 단체 위탁 연수) 수련내용: 참선, 선요가, 선무술, 전통문화(무용, 다도) 등 참가: 학생(1일-2만원, 1개월-60만원) 일반(1일-3만원, 1개월-65만원) 접수문의: TEL (054)745-0246, 744-1689 FAX (054)746-0172 수련비입금계좌: 농협 7211107-52-037300 (예금주) 설기준 준비비: 개인 세면도구, 운동복, 운동화, 필기도구, 우산

1천 5백년전 신라시대에 창건된 골굴사의 부설 선무도 대학에서 주관하는 본 수련회는 전국에서 모인 청소년들이 대 자연 속에서 불교와 선무도를 통해 심신을 단련하고 호연의 기쁨을 느끼며 화랑정신을 배운다. 선기공 수련으로 정서불안과 각종 성인병, 만성병을 치료하고 가정과 학교에서 소용한 인성교육의 효과를 얻는다.

일과표	
4시	기상, 예불 (참가시에는 3천배 참회 및 전 대웅이 1일 불식)
5시	좌선
6시	조경, 통산
7시	이침공양(팔우공양)
9시	오전수련
11시	108배 참회기도(자아명 향안 서원)
12시	점심공양
13시	독서와 사색
14시	오후수련 및 전통문화 학습(악성)
16시	윤력(도량 청소 및 정비작업)
18시	저녁공양
19시	예불후 학생은 자율학습 및 침외복 쓰기
19시 30분	저녁수련(일반인)
21시	점무 및 취침

- 기립사, 갑은사지, 문무대왕 수종릉(봉림해수육정) 성지순례. \* 입산 후 개인 위생, 이성교제, 술, 담배, 간식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규칙을 어길 경우, 3천배 참회 및 죽비나 회초리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gogulsa.com 또는 sunmudo.com \* 수련회 참가자는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스님, 사범 등 지도인 10명, 무용강사 4명(현직교사 및 전공자), 다도강사 2명(부산여대 다도 대학원 졸업생)

### 대한불교 조계종 11교구 골 굴 시 세계 선무도 협회 大金剛門 선무도 대학

# 성모암 능제 연꽃축제 및 수륙방생 천도제

삼보전에 귀의하옵고 조선 명종때 불거촌에서 탄생하신 진묵대사님은 동양의 소식 가라하여 진나라 능인적묵(能印寂默)의 자리에 오르시 진묵이라 칭송하여 후대에 업적이 길이남아 우러러 전한다 그중 만경의 능제에 남기신 행적을 하도 기이하여 구전됨에 후학들이 아래와 같은 행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수행중에 밝은 예언으로 보니 지금의 능제 저수지에 고기잡이 하는 처사님과 아이들을보고 황급히 달려가 야단을 치니 처사님들은 아랑곳 하지 아니하고 되려 매운탕을 권하며 대사를 농하여 이에 대사는 받아먹고 용변으로 죽은 물고기를 살아숨쉬는 고기로 다시 방생하는 기이한 행적을 보이사 모두 놀라 었드려 절하며 참회 하였다 전합니다. 바로 그곳 능제 저수지에 지금은 연꽃이 만발함에 축제를 열고 수륙 천도제와 방생법회를 병행하오니 모두 참석하시길 모든 대중에게 아립니다.

성모암 대중일동  
일시: 2002년 7월 17일 수요일 11시  
장소: 능제 연꽃축제 대행사당  
모든 방생물은 주천인 성모암에서 준비하며 자라, 청거북, 가물치, 등은 방생금지 하오니 착오없이시길 바랍니다.

연락처: 성모암 종무소 Tel. 063)544-0416 Fax. 063)542-6991

# “코골이, 당뇨, 암, 특효”

(코골이 연구 10년)  
KBS 2002. 3. 13 토요일 아침 방영  
MBC 1999. 8. 7 고향은 지금  
경양위 제365호 특허 13629출원

오랜 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육학+음양오행+신통력+선도특수법+천지 민간 약초로 수년을 연구하신 백련스님 공기오염 자동차 매연 오염된 물 농약에 찌든 채소과일 등으로 현대병이 많은 이런 분께 드리겠습니다.

1. 오랜 세월 코골이와, 비염, 축농증 고생하신 분
  2. 간 복수찬대, 각종 암 생사에 허덕이시는 분
  3. 만성변비, 약 드실 때만 관찮고 재발 하신 분
  4. 당뇨병으로 수년간 고생하신 분
  5. 류마치스 관절염, 신경통 산후병 고생하신 분
  6. 위장병 고민하신 분
- 이 제품은 깊은 산중에 자생하는 약초로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이면 모든 제품에 효능을 직접 느끼실 수 있습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달마사 불사에 쓰여집니다.  
◎ 단원농협 813015-56-022193 정광채

TEL. 055-385-0065~6 H.P. 011-570-3357